

KFC, TDI 시황 따라 오락가락!

2003년 1/4분기 매출 33.6% 증가 ... Factive 원료 계속공급 예정

한국화인케미칼의 2003년 1/4분기 매출액이 2002년 1/4분기에 비해 33.6% 증가한 489억원으로 나타났다.

또 2003년 1/4분기 영업이익은 60억원을 기록해 2002년 1/4분기의 2640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으며, 경상이익도 77억원을 기록해 2002년의 2026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. 당기순이익 역시 54억원을 기록해 2026억원 적자였던 2002년 1/4분기에서 흑자로 전환됐다.

한국화인케미칼은 TDI(Toluene Di-Isocyanate)와 EDP-CL(항생제 원료) 등의 정밀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TDI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90%를 넘고 있으며 EDP-CL 등 정밀화학제품은 10% 가량 차지하고 있다.

한국화인케미칼은 국내 TDI 시장의 50%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, 총 생산량의 75%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.

EDP-CL은 1987년 생산을 시작해 공급해오다 1993년부터 미국과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한 품목으로 현재 국내 독점 생산품목이다.

한편, Factive의 개발 초기부터 핵심 중간체 개발에 협력해온 한국화인케미칼은 임상용 및 시제품용으로 1999년 26억원, 2000년 126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향후에도 FDA 승인을 받은 LG생명과학 Factive의 중간체를 계속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. <황현혜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04/29>